

인문계열 [문제 2] 해설 및 모범답안

[문제 2] (가)의 청소년의 고민 항목 중 ‘직업’과 ‘외모’의 연도별 추세를 각각 (나)의 핵심어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나)의 ㉠을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한 다음, (다)의 ㉡을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비판하십시오. (50점, 750±50자).

(가)

다음 표는 A국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단위: %)

연도	고민항목					
	공부	직업	외모	가정환경	기타	계
2013	38.9	22.1	16.2	5.1	17.7	100
2014	37.6	23.9	18.4	9.1	11.0	100
2015	32.9	25.7	19.7	9.9	11.8	100
2016	33.8	26.3	20.3	9.2	10.4	100

(나)

한 사회의 구성원이 소유하려는 부, 권력, 지위 등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 및 집단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태도, 가치관,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루소는 불평등을 성별, 나이 등 선천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적 불평등과 재산, 권력과 같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구분하고 불평등이 두 가지 모두에서 초래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불평등은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 권력의 소유와 행사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사회적 지위, 교육 기회와 수준, 지식과 정보의 소유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한 측면의 불평등은 다른 측면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컨대 재산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적 권력을 얻기 쉬워지고 이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로 이어진다. 사회적 불평등은 이기적인 영리를 추구하고 사적 소유권을 강조하며 경쟁을 권장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

개개인은 외모, 신체 능력, 지능이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데 그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유전적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어떤 유전자가 우월한지, 열등한지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육체적 힘이 중요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낮아졌다. 한편으로 영상 매체의 발달, 미의 상업화와 함께 외모를 중요시하는 풍토는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는 타고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사회적 상황과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최근 A국에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그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관련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학생의 83%가 금년 취업 시장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10명중 3명은 취업을 위해 ㉠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학생 중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는 대답이 27.5%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23.8%) 보다 여성 (31.1%)이 7.3% 포인트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이미 성형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2.3%였다.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취업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대답이 32.5%로 1위를 차지했다.

(라)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선택하는 자유는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 얼굴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추하고 못생긴 얼굴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우리는 자신의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 제 얼굴을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좋은 얼굴을 가져보려고 정성껏 애를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다. 물론 한두 달의 노력으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한 가지의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범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감돈다. 그것은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빛이다. 위대한 예술가나 탁월한 학자나 고매한 종교인의 얼굴에는 분명히 환한 빛이 있고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다. 그것은 좋은 꽃에서 발하는 그윽한 향기와 같다.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일이다. 일생을 무책임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무책임의 그림자가 서린다. 진실하게 살려고 한결같이 노력한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히 진실의 표정이 깃든다.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얼굴의 표정이 그렇게 굳어지고 만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매일같이 조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내 얼굴이 그만큼 진실해지는 것이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내 얼굴이 그만큼 흉한 얼굴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속한다. 참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의 얼굴도 무척 진실해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저마다 좋은 얼굴의 주인공이 되자. 날마다 자기의 얼굴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생활을 하자.